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7월 26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위생정책과	담당자	• 위생정책팀장 김혜정 ☎440-2761 • 담당자 박미숙 ☎440-276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평가 전국 1위...장관상 수상
 - 지정업소는 2,757개소에서 연말까지 3,150개소 목표로 확대 예정 -
 -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 활성화 힘쓸 것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안심식당 지정 운영 17개 시도와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목표설정과 추진실적 2개 분야의 상반기 실적에 대한 상대평가로 실시됐으며, 인천시가 시·도 광역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①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②위생적 수저관리 및 ③종사자 마스크 착용 3대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이다.

현재 인천시 안심식당 지정업소는 2,757개소로 연말까지 3,150개소를 목표로 확대해 나가고, 지정업소에 대해 업소 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손소독제, 마스크, 가림막, 수저집 등 위생·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심식당 정보는 네이버, 카카오맵, T-맵, 한식포털 등에서 식당의 위치와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창남 시 위생정책과장은 “하반기에도 안심식당 지정 운영을 적극 추진해 소비자의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안심식당 표시(군·구별 스티커 제작)

□ 안심식당 표시 : 군·구별 스티커 제작

<p>중구</p>	<p>동구</p>	<p>남동구</p>
<p>부평구</p>	<p>계양구</p>	<p>옹진군</p>
<p>미추홀구</p>	<p>연수구</p>	<p>서구</p>
<p>강화군</p>		